故 고행선 큰심방 무구자료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기증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도 큰심방 고(故) 고행선의 무구자료 80건(사진)을 유족인 고만옥(고행선 큰심방의 남동생) 씨로부터 기증받았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출신인 고 고행선 큰심방은 20대 후반에 신내림을 받고 주로 제주시 및 서부지역에서 활동했으며, 지난해 12월 향년 95세로 별세했다.

해당 무구자료는 올해 1월 말 서순실 심방(제주큰굿보존회장)이 주재한 고행선 큰심방을 기리는 당주하직굿(심방이 무업을 그만두기 위해 신에게 고하는 굿) 등의 추모제례를 마친 후 기증됐다.

기증자료는 고행선 큰심방의 손때가 묻은 무구류다. 심방의 기본 무구인 멩두(명두)라 일컫는 신칼·산판·요령과 함께 무악기인 대영(징), 북, 장구, 설쇠, 바라가 있다. 또 의례에 사용된 제기 일괄과 기메 등도 포함됐다. 박물관은 향후 기증자료 전시코너의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기고 관악부 동문연주회 이달 12일 문예회관 대극장

대기고등학교 관악부 선후배와 가족이 함께하는 동문연주회가 이달 12일 오후 7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연주회에는 대기고 교사 유성철(9회)과 플루티스트로 활동중인 김형관(18회)이 지휘로, 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 임승범(7회)이 호른 협연,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수석 윤태형(23회)이 클라리넷 협연으로 함께한다. 또 색소포니스트 양영욱(9회)을 중심으로 한 색소폰앙상블 '플레이어즈'도 찬조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무료 공연.

제주풍경에 삶·시간의 흔적 고스란히

이중섭미술관 '여운'전 4월 23일까지 기획전시실서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기증작품 중 26점 선봬

허문희 작 '어느 섬의 표류기-그녀의 작은 섬'.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를 거쳐간 입주작가들의 시간과 삶의 흔적이 작품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선과 색을 통해 남겨진 잔상을 통해 그들의 제주에서의 삶이 어떻게 작품에 투영되고 교감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 또 풍경 등 제주를 바라보는 외지인 작가와 제주 출신 작가들의 시각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다.

서귀포시가 올해 첫 번째 소장품전으로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기증작품으로 구성된 '여운(餘韻)'전을 이중섭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오는 4월 23일까지 이어지는 '여운'전에는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입주작가가 기증한 작품 68점 가운데 회화작품 26점이 전시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문화도시 서귀포에서 작업한 입주작가들이 보냈던 시간과 삶의 흔적을 더듬어 보며 예술의 향기를 느껴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이중섭 화백의 예술혼을 이어받아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작가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마련한 시설이다. 2008년 준공된 후 2009년 제1기 입주작가를 시작으로 2022년 제13기까지 88명의 작가를 배출했으며, 현재 제14기 입주작가 4명이 입주해 있다. 오은지기자

"민화가 품은 따듯한 정서 함께 느끼길"

'민화에 담긴 소망' 전이 열리고 있는 탐라도서관 로비전시관 모습. 제주여유민화연구회 제공

제주여유민화연구회 '민화에 담긴 소망' 전 이달말까지 탐라도서관 1층 로비전시관에서

옛 사람들의 꿈과 소망이 담겨 있는 민화. 민화가 품은 따듯한 정서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는 단체가 있다. 제주여유민화연구회(여유회)다.

여유회를 이끌며 제주여유민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문소미 작가는 "전통민화수업부터 민화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랑스럽게 만나볼 수 있도록 많은 실험과 도전을 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올해 그 첫 번째 시도로 탐라도서관 1층 로비전시관에서 '민화에 담긴 소망:Make a wish'전을 열고 있다. 문 작가를 비롯 백충의, 김해울, 김미경, 백경미, 여아람, 이미리, 장명희 작가가 참여하는 특별회원전으로 마련된 전시다.

전시장엔 '일월오봉도' '책거리' '궁모란도' 외 15점이 내걸렸다.

문 작가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민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잠시나마 그림 속 풍경을 바라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한다"며 초대장을 띄웠다. 그리고 새해, 모두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 성취되길 기원하며 민화 작품을 감상해보길 권했다. 전시는 이달 28일까지 이어진다. 오은지기자

탐라역사문화권 정비 마중물 사업은?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오는 4월 28일까지 지자체 대상 공모 진행

문화재청이 전국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의 성공적 추진 모형(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2024년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2021년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정비·육성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4월 5개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역사문화권별 기초자원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공모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역사문화권별로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선도사업은 비지정 유적 및 주변부를 통합 정비하거나 유적 주변부 특화 경관 조성, 향유공간 조성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전국 기초 자치단체들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역사문화자원 가치제고와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을 선정해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문화재청이 오는 12월 법에 따라 정비시행 계획이 최종 승인된 3개소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차별화 전략 및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은지기자

오는 4월 한라체육관서 '제주북페어'

3회째 맞는 전국 독립출판물 박람회… 참가팀 모집

오는 4월 8~9일 한라체육관에서 '제주북페어 2023 책운동회'가 열린다.

지난 2019년 첫 회 개최 이후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다가 지난해 3년 만에 2회 행사를 연 '제주북페어'는 올해 3회째를 맞는 전국 독립출판물 박람회다.

전국의 독립출판물 제작자 및 소규모 출판사, 독립서점 등 책을 주제로 한 종이매체 콘텐츠 제작자 200팀이 모여 직접 만든 책을 전시·판매하고 관련 세미나를 운영하는 대규모 책 박람회다.

'제주북페어 2023'을 앞두고 탐라도서관이 참가팀을 모집에 나선다.

참여 대상은 종이책 1권 이상 발행한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 독립출판물을 유통하는 독립서점이며, 엽서 및 포스터 등 굿즈만을 제작하는 팀은 신청이 어렵다. 모집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며, 접수는 제주북페어 공식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오은지기자

해녀들의 무사안녕·풍어 기원 '해녀굿'

오는 4월까지 도내 32개 어촌계서 봉행

제주해녀들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해녀굿'이 도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우도면 서광리 어촌계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도내 32개 어촌계에서 '해녀굿'이 봉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용왕굿, 영등굿, 해신제, 수신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해녀굿은 마을어촌계 주관으로 음력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약 두 달간 도내 해안가 일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도는 제주해녀문화를 널리 알리고 문화 외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이번 해녀굿 봉행에 제주 주재 외국영사관 관계자를 초청하고 있으며, 해양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협력 증진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